

**| 저자초청 강연회 - 사례자료 |****“공동체는 탁월한 개인보다 지혜롭다”****- 강위원 저자(여민동락공동체 살림꾼)**



# 공동체는 탁월한 개인보다 지혜롭다.

- 공동체 운동의 소소한 사례들 -

강 위 원

광주 주먹밥은행 은행장

여민동락공동체 살림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

## 1. 머리말

운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런데 자못 떨린다. 아직 많이 거칠고 부족하다. 겸손이 아니다. ‘삶’ 과 ‘공동체’ 에 대해 누군가에게 웅숭깊은 말씀을 나눌 만큼 영글지 않은 탓이다. 공동체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이나 현황에 문외한인이다. 성현의 말씀에, 몸으로 살아낸 얘기 외에는 어디 가서 입으로만 수다 떠는 일을 절대 금하라 했거늘, 제가 이를 익히 알면서도 다시 후회할 바를 만들고 있지 않나 싶다. 그만큼 강의라는 이름으로 뭔가 고백하는 일처럼 무서운 일도 없다. 결국 특별한 얘기를 그럴싸하게 풀어내는 지적 호기보다는, 제가 사는 삶의 방식과, 함께 하고 있는 농촌공동체인 ‘여민동락’ 그리고 5년 동안 관장을 했던 광주의 ‘더불어樂’, 최근 설립한 광주 주먹밥은행 등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 2. 광주다움을 위한 공동체 생태계 실험 -광주 주먹밥은행

### 1) 광주 공동체정신의 상징 ‘주먹밥’

광주주먹밥은행은 80년 오월 광주의 공동체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에서 모티프를 얻은 이름이다. 소외된 이웃들이 의지할 수 있는 주먹밥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이웃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십시일반 기금을 모으고 필요한 이들에게 빌려주는 ‘마을 은행, 이웃 대출’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주먹밥은행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은행이다. 주먹밥은행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 전담인력을 파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고, 아쉬운 소리하기에는 자존심 상하는 이웃들을 위해 필요한 자존 은행이다.

(※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이 아닌 광산구 주민들이 십시일반 기본재산을 마련해서 설립한 민간 재단이다. 전체 회원 4600명에 이르고, 연간 민간 기금 20억 원 규모로 광산구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복지의 엔진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동체복지 모델이 되고 있고, 기존 행정과 제도로 실행하지 못하는 다양한 공동체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가난한 이들만을 돕는 복지재단이 아니라, 주민력 자치력 복지력을 키우기 위한 경계 없는 나눔을 통해 공동체 강화의 지원군이 되고 있다.)

## 2) 최대한도 30만원의 ‘3무 착한신용대출’

주먹밥은행은 금액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겪는 금전 문제와 경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대 3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이 대출금을 1년 이내로 상환하게 된다.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주먹밥은행은 기초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대출금 상환 계획과 상환 의지를 확인한 후 대출금을 지급한다. 이자도 담보도 보증도 요구하지 않는 말 그대로 ‘3무 착한신용대출’이다.

## 3) 금융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먹밥은행은 대출금의 상환을 강제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유지되는 믿음 은행이다. 때문에 대출금 상환과 예치금 보호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부실의 위험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대출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공동체가 되어 예치 이웃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주먹밥은행은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와 협업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모든 이웃들이 채무상담과 금융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과 협력하여 복지연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투게더광산의 복지망도 활용한다. 명실상부 공동체 생태계 강화와 금융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길 것이다.

## 4) 마을이 은행, 이웃이 대출

예치 이웃들에게는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이자는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채 기부되어 다시 주먹밥은행에 지정 기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 주먹밥은행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마을 은행, 이웃 대출’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의 기대와 응원 속에 시작된 주먹밥은행. 이제는 이웃들의 경제적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공동체로, 금융복지의 새로운 모델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 3. ‘더불어 樂’ 복지관을 공동체의 마당으로

#### 1) 복지, 담장을 넘어 마을로

광주 광산구 노인복지관 더불어樂은 도시공동체의 한 사례로 특별한 경우다. 이용자 중심의 회원제 복지관 건물을 마을 중심의 공동체 마당으로 확장한 보기 드문 유형이기 때문이다. 복지관의 미션은 바로 ‘사람중심 마을거점 공동체복지’다. ‘마을에서 어르신 한 분을 잃는 것은 큰 도서관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는 표어를 화두로 삼고 있다. 어르신들을 단순히 복지재정의 소비자 혹은 수혜자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공동체의 당당한 주체로 ‘예우’할 것인지를 여부, 그것을 복지관의 철학과 관점을 바로 세우는 기준으로 삼는다. 어르신들이 지닌 경험과 자산, 재능과 지혜를 지역사회를 위해 두루 쓰일 수 있도록 거들고 돕는 일,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와 기관, 마을 모임들이 어르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일을 복지의 근본에 둔다.

#### 2) 복지, 소유에서 공유로

나아가 복지관 담장을 허물고, 복지관이 지역거점 다기능 복지의 역할을 해 갈 수 있도록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긴다. 낮에는 노인복지, 밤에는 주민들이 이뤄가는 마을복지, 주말에는 청소년들이 주인이 되는 청소년학교를 통해, 그야말로 온 마을이 복지관을 거점으로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이 만나는 공동체 복지의 광장을 만들고 있다. 땅 사고 건물 짓는 토건복지 대신 기존 건물의 이용공간을 확장하여, 그 비용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중심 복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이른바 ‘밤에도 열린 복지관’, ‘주말에도 열린 복지관’은 특정 대상의 소유에서 마을 전체의 공유로 복지관을 개방한 사례다. 담장을 낮추고 운영인력만 갖춰지면 복지관 하나가 온 마을 주민들이 사립문 열고 접시 돌리며 마을 공동체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 3) 어르신들의 자주적 결사

그래서다. 복지관 1층 휴게실을 개조해서 마을도서관과 마을찻집을 만들고, 이를 지역에 나눴다. 국가의 보조금과 인건비 지원 없이, 어르신들 스스로 십시일반 나눔과 협동의 힘으로 만든 작품이다. 379명의 어르신들이 기금출연으로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결사를 하셨다. 시공설계와 감독 또한 건축 일을 하셨던 어르신 한 분의 재능기부로 이뤄질 만큼 예상치 않은 모색이었다. 밤과 주말에도 문을 열고 지역주민 누구라도 이용하는 마을도서관과 마을찻집, 이렇게 문을 연 마을도서관에서는 어르신 글짓기 교실, 작가초청강좌, 어르신들과 초중고 학부모 독서회와의 만남, 공정무역토크쇼, 어르신과 지역주민 작품 전시회, 작은 음악회, 휴먼 다큐멘터리 상영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 혹은 기업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협동조합의 원칙과 정신으로 어르신들이

만들어 낸 쾌거다.

#### 4) 광주전남 협동조합 1호

어르신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국가가 마련해 주는 노인일자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르신들 스스로 자립형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공헌활동도 해보라며 ‘더불어 樂’이라는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당연히 적잖은 출자금도 모았다. 그래서 두부공장도 짓고 팔죽가게도 열었다. 이미 협동조합의 순례지가 되고 있고 광주전남 협동조합 1호로 지역협동조합의 선구자로 정착했다. 머지않아 낮 시간에만 운영하는 경로식당을 밤에 개방하여 협동조합으로 도농직거래 밥집을 운영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이렇듯 공공건물을 특정 대상의 ‘소유’에서 마을의 ‘공유’로 바뀌가는 관점의 변화가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내고 있고 사람중심 마을거점 공동체복지의 공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 4. 여민동락공동체의 일상

농촌의 현실은 암울하다. 수입 개방의 파고와 해마다 널뛰기하는 농·축산물 가격 등은 농민들을 절망케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동체’ 운동이 태동하기도 했다. 상당수가 실패로 돌아갔다. 지역민과 호흡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폐쇄성이 큰 원인이었다. 전남 영광군 묘량면의 ‘여민동락(與民同樂)공동체’가 지역사회와 주민 중심의 자주, 자립, 자치의 마을공동체를 목표로 삼은 이유다.

여민동락공동체는 작고 가난한 비영리단체다. 소박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동행중이다. 폐교 위기의 시골학교를 살려가려 애쓰면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농촌의 교육과 문화, 복지와 경제의 부흥을 위해 힘쓰는 일터공동체다. 특히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복지 너머의 복지’를 꿈꾼다. 농민들과 더불어 농사를 짓고 밥을 먹으며 작은 시골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농촌의 삶터를 새롭게 살리는 지역일체형 공동체를 지향한다.

#### 1) 할매손 송편공장부터 동락점빵까지

2009년 ‘여민동락 할매손 모싯잎 송편공장’을 설립했다. 마을 어르신 13분이 참여해 떡을 만들었고, 40여분은 작목반을 꾸려 모싯잎을 생산했다. 지역이 쌀 중심이다 보니 일자리가 거의 없었다. 모싯잎 송편을 지역특산품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모싯잎 재배를 고민했다. 지천에 모싯잎이 널려 있었고, 재배도 비교적 쉬웠다. 농협에서 대출 받아 모싯잎 송편 공장을 세웠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판로가 확대됐다.

처음에는 여민동락 후원자를 대상으로 판매했지만 쇼핑몰을 만들고 지역축제에 참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불특정 고객을 확보했다. 현재 3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무엇보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의 노동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적관계가 복원됐고, 삶이 풍성해졌다.

마을가게도 있다. 사람과 사랑을 잇는 마을가게 ‘동락점빵’이다. 묘량면은 낙후돼 있어 구멍가게도 없었다. 구멍가게는 주민들의 염원이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구매난민’을 위해 탑차를 이용해 이동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사회서비스형 유통사업단을 만든 셈이다. 다양한 생필품을 공급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구매하고 수익은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다. 2014년 동락점빵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전남지역 1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지역주민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제든 복지든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여민동락의 철학이 담겨있다. 동락점빵 이동장터는 여민동락공동체 마을살이의 꽃이다. 1톤 트럭에 생필품을 싣고 차량방송을 하며 마을과 들녘을 돌아다닌다. 매주 장터에서 만난 주민들이 300여 분 가량이다. 그만큼 사연도 많고 눈물도 깊다.

한 어르신은 소화가 안 된다며 ‘사이다(페트병)’ 한 병을 달라신다. 집까지 가져다 드리며 “자꾸 소화가 안 되시면, 사이다 대신 ‘약’을 드셔야 한다.”라고 당부까지 하고 나온다. 일주일 뒤 다시 만난 어르신, 다짜고짜 집으로 끌고 가신다. “아니 당최 안 된 당께. 한번 봐주소잉.” 그때까지도 텔레비전 리모컨이 안 된다든가, 가전 도구가 안 되나 보다 했다. 그런데 아뿔사! 어르신께서 내민 것은 지난주에 사셨던, 그 사이다였다. 사이다 뚜껑을 못 열어서 아직까지 못 드셨다는 말씀. 며칠 전에는 망고주스를 사셨다. 이번에는 바로 뚜껑을 뚫 다음 다시 잠가 드렸다. “어르신! 망고주스 제가 따왔으니까, 이렇게 흔들어서 따라 드세요~” 이렇게 산다. 동락점빵은 단순한 이동장터가 아니다. 협동조합 경제사업처럼 보이지만, 집집마다 주민들의 살림을 살피고 안부를 확인하는 농촌복지의 과정이기도 하다. 어르신들의 마지막 삶과 동행하며 우애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평생을 농부로 살다가 이제 가장 작고 힘없고 가난한 생의 끝에 와 있는 분들이다. 충만한 삶을 기대할 순 없다 해도, 생의 끝 자락에 외롭지 않게 기댈 어깨 정도는 옆에 있어야 마땅하다.

## 2) 협동조합과 농민 그리고 공동방아

올 해 수매가 폭락에 대한 대책회의 때 있었던 일이다. “부모가 물려주신 땅으로는 네 명 식구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웠어라우. 농사량을 늘려야 살 것 같아서 땅 사고 임대하고 인자 논농사 120마지기요. 사람이 없으께 기계 사고 창고 짓고 하다가 도시에서 번 돈 다 바닥났지라우. 7년 지나 남은 건 빚 뿐인디 쌀값마저 이라고 똥 값잉께 앞이 캄캄하당께요.” 농사만큼 보람된 일이 없다며 30년 가까운 도시생활을 접고 귀향한 지 7년차인 이장님의 하소연이다. 결국 도시녀인 아내가 농사 외 다른 일로 생계를 돕는단다. 더불어 행복한 농촌이 오기는 올까. 농촌에서 농사로 밥걱정 않고



사는 게 가능하거나 할까. 그래서다. 2015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 삶’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농민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어 쌀 수매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공동방아’라는 이름으로 마을 농가의 쌀을 도시의 회원들에게 연결하고 있다. 쌀 주문을 받아 매월 적당한 날에 방아를 찧어서 택배로 공급하는 일이다. 공공기관 몇 곳이 쌀 구입에 참여하면서 공동방아 수량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나락 매입에 대한 협의와 결정은 ‘동락점빵’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님들의 몫이다. 대부분 이장님들의 이사로 계셔서 가격결정이나 품질보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생태주의니 자연주의 농법이니, 소농과 고령농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농촌이니 하면서 안간힘을 써왔지만, 좋은 말만큼 현실은 호락호락하질 않다. 당장 농촌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민들의 전투가 가혹하리만치 처절한 탓이다.

협동조합 회의 도중 이장님 휴대전화가 울린다. 인근 마을에 사시는 고령농이신데 쌀값 걱정, 판로 걱정으로 한탄을 하시는 모양이다. “어르신 걱정하지마쇼이잉. 내가 지금 어르신께 3,000원 더 쳐서 내줄라고 이야기중인께잉.” “오매 오매 고맙네야. 뭘 일이당가. 그럼 자네만 믿네잉.” 하고 끊으신다. 대화가 짹하다 짹하다.

### 3) 비닐하우스 마을보따리전

‘장암골 마을보따리전’은 추수 끝나고 김장철 준비하는 딱 그 사이 열린다. 절기로 보면 입동(立冬)과 소설(小雪)사이다. 벌써 몇 해째 이어지고 있다. 서양식으로 치면 추수감사절이라 해야겠다. “형편이 그렇게 간단히 준비하드라고잉.” 처음엔 그러셨다. 허나 마을마다 분주하다. 간단히 준비해서 조촐하게 잔치를 열자는 소박함(?)은 늘 온데간데 없다. 모태다 보면 그때마다 판이 커지고 만다. 새로 김치를 담가 떡국 한 그릇 나눠먹자 했지만, 김치 담그는 일부터 예사롭지 않다.

며칠 전부터 부녀회장님 차 트렁크에 이 집 저 집 배추가 모인다. 흰 무도 보이고 빨간 무도 보인다. 누가 봐도 한집 채소가 아니다. 이장님은 감도 한 포대 내놓으셨다. 재미난다. 하루 전 계란지단 부치고 가늘게 썰어서 담아 놔다. 파도 미리 송송 썰어 놓으시고, 김 가루도 빼놓지 않고. 소고기도 삶아서 얇게 찢어 놔다. 떡국 고명용으로 모두 손색없다. 향꾸네 모으려면 마을회관으로는 턱도 없다. 그간 품앗이학교에서 그린 그림도 전시하고 광주에서 초청한 공연팀의 전통춤과 판소리 공연도 봐야 한다. 밖은 추워서 엄두도 못 낸다. 그렇다고 그럴싸한 실내공간도 없다. 그래서 택한 게 비닐하우스다. 안성맞춤이다. 탁월했다. 늘 보던 곳이라 만만하고, 난방기 없어도 따뜻하다. 비닐하우스는 농부들에게 안방만큼이나 소중한 또 하나의 집이다. 다용도 전천후 공간 말이다. 마을보따리 문화난장 행사로 곡식을 말리고 보관하는 농사전용 공간에서, 이제 미술과 음악이 공존하는 공연장으로까지 탈바꿈했다. 손을 뻗어보니 춤사위를 방해하지 않을 만큼 공간도 제격이다. 품앗이학교 미술시간에 그린 그림도 걸고, 땀땀 쓴 보따리전 축하 글도 걸었다. 한글실력이 일취월장한 어르신의 시한 편도 떡하니 전시했다. 여기저기 화기에애하다. “아따 월암댁 참 잘 그랬소잉.”



“우리 선상이 잘 갈쳐서 그데요.” 하며 대거리도 주고받는다. 배우와 관객이 따로 없이 마당극으로 이어진 판소리 공연은 비닐하우스를 최고의 절정으로 뜨겁게 달구고 만다. 누가 봐도 재미난 전시관이자 미소 절로 나는 공연장이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이렇게 산다. 농촌 식으로 말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 세련되지 않아도 좋다. 그 안에 꾸밈없는 삶이 그대로 있으면 그만 아닌가.

#### 4) 마을학교

여민동락공동체는 속칭 ‘복지재벌(?)’이다. 마을 곳곳마다 문어발처럼 마을복지 센터를 두고 있다. 23개나 되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 마을회관이 ‘여민동락 출장소’인 덕분이다. 마을마다 있는 마을회관을 마을복지문화센터로 만들어 마을공동체 안에서 주민들 스스로 우애와 협동의 복지를 이루도록 신명을 쏟우는 일, 그게 바로 지역공동체가 여민동락에게 내린 마을복지 심부름이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일명 ‘장암산 마을학교’다. 여민동락 정면에 482m의 겸손한 높이로 병풍처럼 펼쳐진 산, 정상 일대가 평평해서 앞마당처럼 다정하고, 산세가 마치 물위를 떠가는 조각배처럼 생겨 주변의 다른 산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산, 그 산이 바로 마을의 정신과 기운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장암산(場岩山)’이다.

농한기 때 농촌마을은 마을회관이 시끌벅적하다.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한동안 병원에 다니시느라 못 나오시던 동네 어르신들까지 모두 모이니 마을 잔치가 따로 없다. 건강체크와 건강체조를 한 뒤에는 민요교실까지 이어진다. 진도 아리랑과 뱃노래를 배우고, 동네 누구덕 자녀 이야기가 줄줄 이어진다. 특별한 차림이 아니라도, 김자반, 동치미, 그리고 김치 없어서 함께 준비한 점심밥상도 더불어 함께 하니, 더 이상 즐거울 수 없다.

궁극적 목표는 따로 있다. 이런 공감과 연대의 과정을 거쳐 장암산 마을학교의 꿈은 단연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완성이다. 이른바 마을회관을 싹틔줄 거점으로 삼아 마을별 대동회를 활성화 해 가는 것이다. 과거 촌락사회의 운영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자치적인 집회조직인 대동회다. 과거 대동회에서는 마을의 임원선출, 예산과 결산보고, 공유재산의 관리대책, 규칙제정, 공부(公賦)의 대책, 임원의 보수결정, 수리시설과 농로 등 마을 공동의 개발대책 등을 비롯한 마을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공동이익과 공동행위, 사회적 협동에 관한 문제가 토의, 결정되었다. 의사 진행은 촌락의 공식적 지도자인 이장이 주관하지만, 중요한 일은 유지로 불리는 비공식적인 지도자들과 미리 상의해서 대동회의 공론에 부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대동회를 바탕으로 대동경제, 요새 표현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새로운 농촌경제의 모델을 발굴 발전시켜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을학교는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이러한 상호부조정신을 강조하여 사회적 협동을 강화하는 조력자의 역할이자 농촌마을의 희망을 설계하는 공동체의 학습장이다. 돈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물질적 지원 못지않게 공동체적 인간관계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한다. 장암산 마을

학교는 여민동락공동체가 제시하는 공동체 중심, 마을복지의 아주 작은 시도다.

## 5) 행복한 퇴임식

송편 만드는 어르신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80세다. 73세부터 시작했으니 횃수로 8년차다. 가장 젊은 분은 69세, 대부분이 70대 중반이거나 그 이상이다. 농사는 이제 거의 짓지 않는다. 논농사야 동네 젊은 청년이 기계로 다 해주니, 쌀 사먹는다고 생각하고 기계값을 주신다. 그런데 어르신들과 하는 일이 늘 그렇다. 시간이 지날수록 숙련 기능이 느는 게 아니라, 병원 갈 일이 늘다. 자연스럽게 후임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들 아직은 정정하다고 하시지만,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떡집에선 하루 만에 끝낼 일을 우리는 이를 삼일 걸린다. 만드는 속도가 느려진 거다. 하루에 얼마나 생산하느냐가 제조단가를 결정짓는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떡 공장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얘기다. “우리는 할 만큼 했제잉. 벌써 7년이 넘었는디. 인자는 좀 더 젊은 것들(?)로 바꿀 때가 되었어. 빠릿빠릿한 젊은 새댁(?) 들로 말이여.” 그래보야 60대다. 후임자를 찾는 일은 어르신들이 하시기로 했다. 그런데 후임자 구성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아직은 본인들 만한 사람들이 없단다.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하하.

10년차 세월이 가니 동락원 농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퇴임(?)하실 분들이 여럿이다. 다들 여민동락 일자리가 생길 때부터 함께 했던 어르신들이다. 평생 농사만 짓다 각종 만성질환을 안고 사시는 어르신들. 이젠 어쩔 수 없이 세대교체가 필요해졌다. “월급 받아서 손주한테 봉투를 줬당께. 지난 번 설 때도 세뱃돈을 10만원이나 담았어라우. 어른 노릇 한 게 좋습디다.” 그 말씀들이 떠나질 않는다. 달인들을 위한 ‘행복한 퇴임식’이란 뭘까, 그게 고민이다.

## 6) 여민동락공동체의 헌법

여민동락공동체는 처음부터 자립과 자치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설립됐고, 지금도 그 헌법대로 활동하고 있다. 첫째, 노동과 생산을 통하지 않은 모든 외부의 기부와 후원은 반드시 그 십분의 일을 쪼개, 더 가난하고 후미진 지역과 단체와 시설에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국가의 보조금과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되, 다만 국가의 보조금과 인건비는 재정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완벽하게 이룬 뒤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감당 가능한 자금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아이들을 도시로 유학 보내지 않는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본은 지역에 ‘사는’ 것이다. 지역 사회의 작은 시골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주민들과 함께 교육과 문화를 살려가야 온전히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다. 넷째, 농촌주민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밥을 먹으며 농부로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을활동가 혹은 지역운동가라 자칭하면서 주민들 속에서 ‘헌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으로 함께 살며 주민들의 살림모양을 닮아가고 농민들에게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하면서 온전히 마을구성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7) 신뢰와 학습이 사회적경제의 관건

이처럼 여민동락은 농촌의 경제 복지 교육 문화의 융복합적 접근과 사회적경제의 원칙에 의거해 마을공동체를 살려가고 있다. 여민동락 설립과정에서도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관계가 풍부한 사람은 관계를,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정능력을 출자하면서 시작했다. 여민동락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구성원간의 절대적인 ‘신뢰’ 이자 끊임없는 ‘학습’ 이다. 여러 난관도 있고, 일탈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관계의 축적을 통한 신뢰의 확인없이 공동체는 성공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신뢰의 확장은 끊임없는 학습에 기반하지 않고는 오래갈 수 없다. 여민동락공동체는 ‘월요학당’ 을 통해 학습하고 성찰하는 걸 게을리 하지 않는다. 공동체는 늘 갈등과 반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살림살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절 통제하고 신뢰로 승화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학습과 성찰의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 8) 작고 소박하게 실천하는 협동조합

여민동락공동체는 지금 ‘동락점빵’, ‘할매손 송편’, ‘행복일자리 영농협동조합’ 을 운영한다. ‘노인주간보호센터’ 나 ‘학교살리기’ 같은 복지와 교육활동 외에도 다양한 협동조합 유형의 사회적경제를 실천해 간다. 협동조합은 한마디로 동업이다. 동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규모가 크고 사람이 늘어갈수록 그 실패의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 그래서다. 여민동락이 만드는 협동조합은 지극히 가난한 협동조합이다. 작고 소박하게, 마을에서 사는 주민들이 그 마을에 거점을 두고 만들어 가는 구조다. 사람중심 마을중심이라고 해야겠다. 큰 돈을 벌 수는 없다. 그러나 큰 위험 없이 큰 행복을 추구하는 걸 목표로 한다. 행여 수익이 생기면 마을기금 혹은 지역 사회 공유자금으로 축적한다. 뜻이 좋아야 그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분열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당장의 성과보다 오래도록 길게 궁리하고 신뢰를 축적하는 관계망을 우선시 한다. 그래야 온전히 사회적경제 혹은 협동조합이 ‘좋은 사람들과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는 자부심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기업이 된다. ‘사업’ 이 아니라 ‘살림’ 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좋은 뜻만 있고 ‘경영 능력’ 이 없으면 안 된다. 영리기업 이상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부단히 제도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부지런함을 보여야 한다. 워크숍이든 강연회든 아니면 관련 저서와 자료, 논문들을 접하고, 선진지 견학과 선구자들과 자주 어울려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공부와 경험과 신뢰, 나아가 마을 속에서의 관계가 깊어지고 쌓이다보면,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 또 다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그것이 바로 협동의 힘이고 협동조합의 긍정성이라고 생각한다.

## 5. 지방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공동체 생태계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제고다. 현장주체는 분명 민간이다. 민간의 결사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율적인 운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민간의 참여로 이뤄가는 공공성의 확장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 민간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의 바탕이 없이 지방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가 불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오히려 지금까지 일부 지방정부가 실적과 과속에 의해 공동체 생태계를 교란시킨 측면도 있어온 바, 민간을 행정행위의 하위체계로 인식하는 편파적 관점을 개선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자원을 배분하고 인력배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늘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지방정부의 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민간의 공익적 사회적경제 활동을 거들어주고, 관행에 의한 저해요인을 제거해 주는 일이 기본이어야 한다.

둘째, 작고 강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초지자체는 현장형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고, 이를 광역지자체가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점진적 단계를 거치는 게 맞다. 광주 광산구는 복지관 어르신들이 중심이 된 노인협동조합이 있고, 청소 환경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청소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를 모델로 전국적 영향력을 갖는 튼실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마을 속에서 협동조합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셋째, 민관협력과 학습조직의 구축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했듯이, 사회적경제의 수준은 그 부서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공무원들이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필요에 대한 신념이 있고, 그 분야에 탁월한 전문적 역량을 갖춰야만 정책과 제도의 지원에 있어 다양한 민원대응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상식에 해당한다.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전문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사회적경제 행정동아리도 만들어서 두루 탐색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민간의 학습조직도 마찬가지다. 학습없이 진화없고 기록없이 축적없다. 행정은 민간의 학습조직을 지원하고, 민관이 함께 공부해 가면서 지역특성과 환경을 분석하고, 장차 중기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 6. 우리의 이상은 마을공화국

마하트마 간디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에서 “인도를 살리기 위해선 70만 개의 마을공화국이 필요하다.” 라고 했다. 마을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수준이 아니라, 마을이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현장이라는 뜻이다. 나눔과 배려를 통해 복지와 마을이 만나고 공동체 복지와 공동체 문화, 나아가 공동체 경제와 교육이 이어지는 ‘마을공화국’의 완성, 그것은 지금까지 제대로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복지와 자치의 새로운 접근이자 집단적 지향이다. 마을 안에서 자립과 자치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의 싹을 틔우는 마을공화국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공동체복지’의 미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보다는 물질이 최상의 가치로 대접받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줄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우애와 협동의 여유는 찾을 수 없는 위험사회에 처해 있다. 노동은 더욱 불안정해졌고, 생태환경의 위기는 보다 심화됐으며, 살림의 격차는 극도로 벌어졌다. 오직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맹렬하게 달리면서 개발과 성장에 몰두하는 동안 여럿이 함께 잘 사는 방법, 공동체 정신은 점점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다들 행복한가? 우리 이웃들은 안녕한가? 우리 사회는 건강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이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오래도록 궁리하고 실천해 오고 있다.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게 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생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으고 있다. 남녀노소 빈부강약이 제 마당 제 삶터에서 누구라도 차별당하지 않고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을과 일터를 만드는 일로 어울리고 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철학으로 보육과 교육을 바라보고, ‘마을에서 어르신 한 명을 잃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소신으로 복지를 접근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단순히 골목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범죄, 거짓은 사라지고, 사라진 마을잔치와 웃음과 놀이는 살려가는 변화된 마을과 지역, 그리고 그 바탕을 튼튼히 하는 방향에서 문화와 환경에 관심을 두는 추세다. 그 중심에 주민을 세우고 마을리더를 키워가며 풀뿌리 자치의 자연력과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람, 삶, 살림의 근본을 제대로 뿌리내리는 일을 우선시 하는 지역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희망적이다. 이제 다양한 범주에서 활동해 온 개별들의 실천력을 모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협동과 연대의 살림살이 즉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주민조직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사람이 사람답고 사회가 사회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보다 광범위한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우선 민과 관이 협력하여 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일거일 태세를 갖추는 일부터 시작

해야 한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선구적인 모범을 착실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바람직하고 다행스럽다. 한 축으로는 협동조합을 통해 우리가 사는 마을의 자연과 인적, 문화적 자원들을 조사하고 체계화해 이를 바탕으로 마을을 위해 일할 사람을 키우고 도와야 한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삶터와 일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둔 공익적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한 축으로는 마을 안팎에서 주민과 주민을 잇고, 시민사회단체, 기업, 자치단체를 연결하면서 여러 생각과 자원들이 어울릴 수 있는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나아가 자립과 협동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민들 속에 본래부터 존재하던 '더 깊은 선의 뿌리'를 낙관하고, 좋은 사람과 좋은 체제의 선순환을 이뤄가려는 모양새를 갖추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다. 우리는 더불어 살고 싶다. 우리에게겐 옹기종기 마을을 이뤄온 동네가 너무나없이 잔치를 열고 마음을 여는 소박한 꿈이 있다. 자치를 통해 복지를 완성하고 협동조합과 마을민주주의를 통해 사람의 사람다움을 키워가고 싶다. 가족·세대 간에 할 얘기가 많아지고, 이웃의 삶이 궁금하고,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넉넉한 사람의 숲, 마을의 숲을 이루고 싶다. 그 마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 모이고 수다 떨고 꿈을 꾸는 사람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바짝 엮드려' 바닥에서 마을을 살려가고 있는 이들 안에 이미 그 꿈은 현실로 다가와 있다. 그것이 바로 '마을공화국' 이다. 그래서 바로 '마을공화국' 이다.